

## 退溪의 文學觀에 있어서의 「志」의 문제\*\*

崔 信 浩\*

• 目 次 •

- |                |             |
|----------------|-------------|
| I. 서 언         | V. 言志의 문학관  |
| II. 心の 現象一般과 志 | VI. 言志詩의 실제 |
| III. 心學과 志     | VII. 결 언    |
| IV. 山水自然觀과 志   |             |

### I. 서 언

퇴계의 시의 제목에 「言志」라는 것이 나온다. 「三月病中言志」 「東巖言志」 「陶山言志」 「求志」 등이 그것이다. 또 「陶山十二曲」 중의 前六曲도 「言志」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言志”는 무엇이고, “言志詩”는 어떠한 것인가. 그러나 퇴계는 이에 대한 해답을 직접 남기지는 않았다. 다만 金而精과의 편지 왕래에서 心の 現象一般을 언급한 가운데에서 지의 기능을 말한 것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性理大全』에 언급된 心の 문제를 읽으면 얻은 바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만을 남겨 놓았다.

“志”는 “心之所之”로 해석한다. 그리고 所之의 “之”는 向으로 해석된다. “心之所之”는 “마음의 향한 바”이다. 그러니까 志는 마음의 내용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인 셈이다.

\* 전 성심여대 한문교육과 교수(작고)

\*\* 성심여대, 『성심어문논집』 제16호(1994) 게재논문

(본 연구는 1993학년도 대학 자체 학술 연구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퇴계는 志에 대해서 직접 설명한 바는 없지만, 그의 전반적인 학문이나 문학 세계를 보면 일관된 방향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퇴계는 그러한 방향을 몇 마디로 요약해서 암시해 놓은 것이 있다. 「答李平叔」이라는 편지 속에 “대저 心學이 비록 단서가 많으나 모두 요약하면 人欲을 막고 천리를 보존한다는 두 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퇴계의 학문을 대표할만한 것은 心學인데, 그 心學의 방향을 “遏人欲存天理”에 두었던 것이다. 인욕을 遏하고 天理를 存하는 것, 이것이 어찌면 퇴계의 총체적 학문의 기본방향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퇴계의 문학관과 문학, 특히 言志詩는 遏人欲存天理와 軌를 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퇴계의 언지시를 풀기 위해서는 언지시 자체의 분석만으로는 만족스러운 해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퇴계의 심성론이나 처세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本稿는 언지시의 배경이 되는 것을 몇 가지 살피고 퇴계의 문학관과 언지시의 실재를 살피게 되었다. 곧 心の 현상일반과 志, 심성론과 志, 산수자연관과 志 등을 사상적 배경으로 살피고, 다음으로 퇴계의 문학관과 언지시의 실재를 살필 것이다.

## II. 心の 現象一般과 志

퇴계는 心을 天과 동일하게 보았다. “心이니 性이니 天이니 하는 것은 동일한 이치다. 理에서 말하면 天이라 하고, 사람의 稟受에서 말하면 性이라 하고, 사람에게 존재한 것으로 말하면 心이라고 하는 것이다.”<sup>1)</sup>라 하였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의 神明한 이치를 갖추고 있어서 온갖 일에 대처할 수 있다<sup>2)</sup>고 하였다. 그러면서

1) 『退溪集』 권7, 「西銘考證講義」, 心也性也天也 一理也 自理而言謂之天 自稟受而言謂之性 自存諸人而言 謂之心.

2) 向上, 心者 人之神明所人具衆理而應萬事者也.

心の 기능을 性・情・意・念・慮・思・志 등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견해를 밝혔다. 그 중에서 性・情・意에 대한 언급으로는 이러한 것이 있다.

理는 形과 影이 없으며, 그 心에 담기고 실려 있는 것은 性이요, 性은 形과 影이 없으나 그 心에 기인하여 베풀어지고 發用하는 것이 情이며, 또 情이 발함으로 인하여 비교하고 헤아려서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 意이다.<sup>3)</sup>

여기서 보면, 퇴계는 性을 마음의 근원으로 보고, 情을 發用으로 보고 있다. 퇴계는 다른 자리에서도 “性은 理여서 스스로 發用할 수 없으며 오직 情에 의해서만이 유행할 수 있다.”<sup>4)</sup>고 했다. 퇴계는 또 “性이 動하는 것은 心의 所能然이다”<sup>5)</sup>라 하기도 하고, “物에 感하는 것이 性이요 그 心이 動하는 것이 情이다”<sup>6)</sup>라 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 心이니 性이니 하는 것은 動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動할 수 없고 실제로 動하게 하는 것은 情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心이나 性은 情이 있게 한 근저요, 情은 性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情은 發用的 作用이 주가 된 것 같다. 그러나 퇴계는 “시는 性情에서 나온다.”<sup>7)</sup>라 언급한 것을 보면 이 情이란 단순한 發用뿐만 아니라 정서나 정감하는 감정작용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퇴계는 “七情은 물론 情이지만 四端도 情이다.”<sup>8)</sup>라고 말한 것도 있다. 이것도 情이 發用的 단계를 넘어서서 선악의 단서까지 내포하

3) 同 36권, 「答李宏仲問目」, 理無形影而貯該載於心者性也 性無影而因心以敷施發用者情也 因情之發而經營計度 主張要如此主張要如彼者意也.

4) 同 29권, 「答金而情」, 性非有物 只是心中所具之理 性具於心 而不能自發而自做 其主宰運用 實在於心 以其待心而發.

5) 同 29권, 「答金而情別紙」, 心之動 卽性之所以然也 性之動 卽心之所能然也.

6) 同 36권, 「答李宏仲問目」, 感於物者心也 其動者情也.

7) 同 35권, 「與鄭子精」, 夫詩雖末技 本於性情 有體有格 誠不可易而爲之.

8) 同 16권, 「答奇明彥論四端七情第一書」, 夫四端情也 七情亦情也 均是情也.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情은 여러가지 빛깔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情은 計較商量하는 힘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意의 소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계는 “情이 발한 것으로 인해서 비교하고 헤아려서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 意다.”라 했다. 주자도 意의 기능을 “凡營爲謀度往來皆意也”<sup>9)</sup>라 하였다. 이것은 퇴계가 “비교하고 헤아려서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퇴계는 意의 단계에서 心을 결말지으려고 하지 않았다. 意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저렇게 주장하기도 하여 확고한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퇴계는 情을 舟車에다 意를 舟車를 부리는 사람에 비유하기도 했다.<sup>10)</sup> 수레는 언제 어디에도 굴러갈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러나 언제 어디로 굴러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로지 수레를 끄는 사람의 소관이라는 것이다. 수레를 끄는 사람은 大路라는 어엿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흙탕물이 튀긴 골목길로도 끌 수가 있다. 意는 한 가지 길만이 아닌,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퇴계는 “意는 선과 악의 사이가 되어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벌써 악의 구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曾子는 “반드시 혼자있을 때 조심하라”하였고, 朱子는 “意는 방위하기를 城과 같이 하라”<sup>11)</sup> 하였다. 意는 이렇게 情이 發用하는 것을 헤아리고 비교하고 주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意는 선과 악의 사이가 되어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벌써 악의 구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志이다. 악의 구렁 속으로 빠져들어나는 것을 막고, 善의 大路로만 향하게 하기 위해서 志가 등장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志는 마음의 내용이 아니라 방향이었었다. 陳安卿도 志를 설명하여 “志라고 하는 것은 心之所之인데 ‘之’는 ‘向’과 같다”<sup>12)</sup>라 했다.

9) 『性理大全書』, 권32, 「性理四」

10) 同 권6, 「戊辰六條疏」, 故以舟車比情 以人使舟車比意.

11) 同 권30, 「答全而精」, 意爲善惡之幾 毫釐之差 已陷於坑塹 故 曾子云 必謹其獨 朱子云 防意如城.

곧 志라는 것은 마음의 향한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부연하여, “心이 정면으로 오로지 향한다는 것은 어떻게 향하는 것을 말하는가. 도에 志하면 이 마음이 도를 향해서 오로지 가게 되고, 學에 志하면 이 마음이 學을 향해서 곧바로 가게 되는 것이다.”<sup>13)</sup>라 하였다. 여기서 보아도 志는 心의 내용이 아니라 心의 방향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志가 心의 방향이라면 學이나 道같은 올곧은 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지만 올곧지 못한 방향으로도 향할 수 있을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西山眞도 “志는 心의 用이다. 心을 그 用에 正과 邪가 있다”<sup>14)</sup>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성리학자들은 이 志를 正쪽으로만 터 놓았다. 邪道를 막고 正道만을 터 놓았다는 뜻이다. 그 정도란 다름아닌 志學, 志道, 志仁과 같은 것임은 물론이다. 퇴계의 언급에도 이와 같은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志는 모든것을 바르고, 크고, 성실하고, 확고하게 하려 하여 변함이 없어야 함으로, 공자의 志學, 志道, 志仁 등의 교훈이 있었으며, 맹자의 “志를 숭상하라”하는 가르침이 있었다.<sup>15)</sup>

위에서 보면, 志는 바르고, 크고, 성실하고, 확고하고, 변함이 없는 쪽으로만 향하게끔 통제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學과 道와 仁임을 알 수 있다. 志는 意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學과 道와 仁이라는 大路만을 향하게끔 확실하게 장치를 해 놓은 것이다. 그것은 志의 원래의 속성이 아니라 성리학자들 사이에 전수된 약속같은 것이었다.

다음으로 意와 志를 더 보완해주는 것으로는 思가 있다. 퇴계는 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다.

12) 『性理大全書』, 권32, 「性理四」, 志者心之所之 之猶向也.

13) 上同, 謂心之正面全向那裏法 如志於道 是心全向於道 志於學 是心全向於學 一直去.

14) 上同, 志者心之用也 心無不正 而其用則有正邪之分.

15) 『退溪集』, 권30, 「答金而精」, 志欲其正大 誠確而不變 故 孔子有志學志道 志仁之訓 孟子有尚志.

思하면 얻고, 생각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箕子는 思는 睿가 되고, 睿는 聖이 된다 하였고, 공자는 ‘군자는 九思가 있다.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생각하면 무엇이 먼 것이겠는가.’ 하였다.<sup>16)</sup>

여기서 “思하면 얻는다”했는데 무엇을 얻는다는 말인가. 그것은 물론 學과 道와 仁이요, 이것에 바탕을 둔 明·聰·溫·恭·忠·敬·問·難·義와 같은 생활의 지혜가 아닐 수 없다. 말하자면 思는 意와 志에 임하기 전에 어떻게 意하고 志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意하고 志한 다음에는 그것이 學과 道와 仁의 실현에 알맞았는가를 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思하게 되면 저절로 睿가 되고 聖이 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心이란 天과 동일한 것이어서 오묘하기가 짝이 없는 것인데, 그 하늘 차원의 性이 情에서 發用되고 그것이 思를 통해서 意에서 計較商量되고, 志에서 방향지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心은 一身을 주재하게 되고 우주를 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志가 아닐 수 없다. 志는 자동차의 핸들처럼 心을 방향을 지워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朱子도 “志者心之所之 比於情意尤重”<sup>17)</sup>이라 했던 것이다.

### III. 心學과 志

퇴계의 志는 學과 道와 仁이라는 大路로만 일방통행하게끔 방향지워 놓았다는 것을 앞에서 언급했거니와 퇴계의 心學이야말로 퇴계가 志道를 위해서 생을 바쳐서 천착해 놓은 학문이라 볼 수 있다. 그 心學은 물론 性과 情, 사단과 칠정, 道心과 人心, 本然之性과 氣質之性 등이다. 그런데 퇴계의 心學이 2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心學의 방향이

16) 上同, 思則得之 不思則不得 故 箕子曰 思曰睿 睿作聖 孔子曰 君子有九思 未之思也 天何遠之有.

17) 『性理大全書』, 권32, 『性理四』.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미 序言에서도 언급했지만 퇴계 스스로가 밝혀 놓은 것이 있다. “대저 心學이 端緒가 많으나 모두 요약하면 人欲을 막고 天理를 보존하는 두 일에 지나지 않는다”<sup>18)</sup>라는 것이다. 이 공식에 맞추어 보면 퇴계의 心學은 왜 性-情, 四端-七情, 道心-人心, 本然之性-氣質之性 등으로 이분화되었던가를 쉽게 알 수 있다. ‘遏人欲存天理’의 공식에다 맞추어 보면 한 쪽은 遏하고 한 쪽은 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퇴계의 心學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다.

먼저 性과 情의 문제다. 性과 情은 體와 用의 관계에서 보면, 性은 體이고 情은 用이다. 말을 바꾸면 性은 心의 본질이고, 情은 心이나 性의 發用이라 한다. 그러므로 본질인 性은 純善할 수 밖에 없지만, 發用인 情은 善과 不善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 사람의 마음이 아직 發하지 아니한 것을 性이라 하고, 이미 發한 것을 情이라 하는데, 性은 善한 것이 아닌 것이 없고, 情에는 善惡이 있다.<sup>19)</sup>

여기서 보면 性이란 純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情은 不失其善할 때도 있고 失其善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서 퇴계는 여과를 통해서 情에 不善이 없게 하는 방법을 취했다. 그것이 中節이라는 것이다.

物에 感하는 것이 心이요, 그 心이 動한 것이 情이다. 情은 性에 근원하고, 心의 주재를 받는 것인데, 心이 주재가 되면 그 動하는 것이 中節 아님이 없을 것이니, 어찌 人欲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다만 그 心이 주재가 되지 못하고 情이 스스로 動함으로 인해서 人欲에 흘러 매양 그

18) 『退溪集』, 권37, 「答李平權」, 大抵心學雖多端 總要而言之 不過遏人欲存天理兩事而已.

19) 同 권16, 「附奇明彥非四端七情分理氣辯」, 蓋人心未發則謂之性 已發則謂之情 而性則無不善 情則有善惡.

正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天理 人欲의 판단과 中節과 不中節에 있는 것이니, 情이 병폐가 없는 것도 또한 명백한 것이다. 대저 情이 비록 節度에 맞는다 하여도 역시 情이다.<sup>20)</sup>

여기 中節은 『中庸』에 나오는 용어다.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에서 中節이 나온다. 情이 未發한 것을 性이라 하는데, 性은 心の 본체로써 치우친 바가 없음으로 中이라 하였다. 또 物에 感하여 喜怒哀樂의 情이 發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過와 不及의 失이 없이 모두가 當연의 절도에 합당하다면 情은 바름을 얻어서 理에 거스림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和라고 하였다. 中節의 표준은 물론 性이다. 이렇게 中節의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情이란 不失其善할 때도 있지만 失其善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情 위에도 中節의 기준인 性을 아예 붙여서 性情이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情은 物에 感하면 발현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막 캐낸 광물질과 같아서 불순물도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情의 배후에 여과장치로서 性을 붙여 놓았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퇴계의 志는 性이나, 性을 표준으로 한 中節에 있었다. 그것이 人欲을 막고 天理를 보존하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퇴계의 공식성은 사단과 칠정론에서도 나타난다.

퇴계가 맨 먼저 사단과 칠정을 거론한 것은 「天命新圖」에서였다.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퇴계가 사단을 理와 짝을 지우고, 칠정을 氣에다 짝을 지워서 2분을 해놓은 것은 처음부터 四·七間の 貴賤이나 善惡을 따지겠다는 심산이었다. 왜냐하면 사단을 理에다 결부시킨 것은 理는 極尊無對하고 귀하고 純善함으로 여기서 발현된 사단은 저절로 귀하고 純善할 수 밖에 없지만, 반면에 氣는 천하고 有

20) 同 권36, 「答李宏仲問目」, 感於物者心也 其動者情也 情根乎性而宰乎心 心爲之宰則其動也無不中節矣 何人欲之有 惟心不宰而情自動 是以流於人欲 而每不得其正也 然則天理人欲之判 中節不中節之分 特在乎心之宰與不宰 而非情能病之亦明矣 蓋雖曰中節 然是亦情也.

善惡함으로 여기서 발현된 칠정은 천한 것일 뿐 아니라 有善惡하기 마련이다. 퇴계는 실제로 “理는 極尊無對하다”<sup>21)</sup>라고도 했고, “사람의 一身은 理氣를 겸비하는데 理貴氣賤이다”<sup>22)</sup>라 하였으며, 또 “사단의 發은 純理이기 때문에 不善이 없지만, 칠정은 氣를 겸했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sup>23)</sup>라 했던 것이다. 퇴계는 이렇게 善과 不善의 所從來를 밝히려다 보니 사단과 칠정으로 양분되고, 理와 氣도 양분되었지만, 여기에는 얼마간의 모순도 없지 않다. 첫째로 四·七이 극단적으로 양분되다 보니 사단은 情과 관계가 없이 발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고, 둘째는 氣를 천하다고 보게 됨으로써 氣에서 발한 칠정은 저절로 천한 것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퇴계의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의 說은 奇高峰의 반격을 받게 된다. 고봉은 “非七情之外 復有四端”<sup>24)</sup> 곧 “칠정 외에 따로 사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사단이란 바로 칠정 중에서 中節者만을 가려서 말한 것일 뿐, 처음부터 四·七이 없다”<sup>25)</sup>고 하였다. 또 理에 대해서도 “理之不外氣 而氣之無過不及自然發見者”<sup>26)</sup>라고 하였다. 곧 고봉은 “理라고 하는 것은 氣에 불과하며, 氣가 過不及이 없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퇴계는 고봉의 說을 절충하여 종래의 說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四則理發而氣隨之 七則氣發而理乘之”<sup>27)</sup>가 그것이다. 곧 “사단은 理가 發함에 氣가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氣가 發함에 理가 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퇴계의 說은 고봉의 說에 한 걸음 다가선 결과가 된 것이다. 종래의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의 說은 사단과 칠

21) 同 권13, 「答李達理天機」, 理本極尊無對 命物而不命於物 非氣所當勝也.

22) 同 권12, 「與朴澤之」, 人之一身 理氣兼備 理貴氣賤.

23) 同 권16, 「與奇明彥」, 四端之發 純理故無不善 七情之發 兼氣 故有善惡.

24) 同 권16, 「附奇明彥非四端七情分理氣辯」.

25) 上同, 然非能出於七情之外也 乃七情中節而中節者之苗脈也.

26) 上同.

27) 同 권16, 「答奇明彥論四端七情第二書」, 大抵有理發而氣隨之者 則可主理而言耳 非謂理外於氣 四端是也 有氣發而理乘之者 則可主氣而言耳 非謂氣外於理 七情定也.

정, 理와 氣가 극단적으로 양분화되어 있었는데, 이 수정의 說은 그 거리가 완화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는 “七則氣發 而理乘之”로 고침으로써 고봉의 中節說과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喜·怒·哀·懼·愛·惡·欲의 칠정이 발현될 때에 거기에 理가 타고 있으면 그 喜·怒·哀·懼·愛·惡·欲의 칠정은 中節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계도 “氣發而無理之乘 則陷利欲而禽獸”<sup>28)</sup>라고 했던 것이다. “氣가 발할 때 理가 타기 않으면 利欲에 빠져서 금수와 같이 된다”는 뜻이다. 퇴계는 죽을 때까지 “四則理發而氣隨之 七則氣發而理乘之”를 고치지 않았다. 이것은 人欲을 다스려서 天理를 보존할 수 있는 훌륭한 틀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퇴계는 고봉과 지루한 논쟁을 벌였지만, 퇴계가 利欲을 막고 天理를 보존하고자 하는 志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것 외에도 퇴계의 性理說에는 本然之性和 氣質之性, 道心과 人心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四·七論이나 理·氣論의 범주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本然之性和 道心은 理에, 氣質之性和 人心은 氣에다 근거를 두고 고찰한 것이다. 여기에도 물론 善과 不善의 문제가 끼어들게 되고 퇴계의 志는 本然之性和 道心に 중점이 주어진 것이었다.

이상에서 보면 퇴계의 心性學은 의도적으로 心의 방향을 미리 설정해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存天理·遏人心의 방향이었다. 그것은 敬以直內 또는 居敬窮理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실현되어 갔다. 이것이 퇴계의 志였다.

#### IV. 山水自然觀과 志

志와 관련하여 하나 더 살펴야 할 것이 산수자연이다. 퇴계는 心性을 善惡의 두 갈래로 나누었던 것처럼 거처도 인간 현실과 산수자연으로 나누고 될 수만 있다면 인간 현실을 떠나서 山水自然에 안기고 싶어했

28) 同 권36, 「答李宏仲問目」.

다. 말하자면 자연에 志하고 싶은 심경이었다. 퇴계가 자연에 志하고자 한 이유는 첫째로 存心養性하기 위해서는 시끄러운 인간 현실보다는 자연이 안성맞춤이라는 점과, 다음으로는 자연 자체가 道の 웅얼거림이라 보게 되었다. 퇴계가 “鳶飛魚躍은 道가 물건에 있는데, 自然이 발현 유행하는 실상을 볼 수 있고 …… 浴沂詠歸는 道가 日用하는 중에 있는데, 자연이 발현 유행하는 사실을 볼 수 있다”<sup>29)</sup>라 한 것도 자연에서 道를 본 것이다. 또 퇴계는 “山水를 좋아하는 것은 그 맑고 높음을 좋아해서이다. 맑은 것은 스스로 맑고 높은 것은 스스로 높은지라, 사람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못한 것에 어찌 관여하겠는가. 산과 물은 스스로 한탄하지 않는데, 나는 한탄하니 이것은 내가 어리석은 것이다”<sup>30)</sup>라 언급한 것이 있다. 여기에서도 道가 보인다. 맑은 것은 스스로 맑고, 높은 것은 스스로 높으면서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관여하지 않은 것은 聖인의 경지요 道の 경지이기 때문이다. 퇴계는 이러한 자연 속에서 머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퇴계는 벼슬살이를 樊籠, 곧 짐승을 가두어둔 우리나, 새를 가두어둔 조롱으로 생각하였다. 年譜의 기록에서 보면, “선생의 취미와 생각하는 것이 높고 깨끗하여 항상 어지럽고 거센 조정의 벼슬살이에서 거리낌없이 섰듯 물러 나오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비록 영광스러운 벼슬자리에 있는 것도 즐거워하는 바가 아니었다.”<sup>31)</sup>라 되어 있다. 퇴계는 이렇게 인간 세상이나 벼슬이 싫었다. 대신에 자연의 삶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포근하게 생각했던가는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퇴계의 61세 때 지은 「陶山雜詠」의 일부다.

혹은 돌에 앉아 샘물을 구경도 하고 대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며, 여울에서 고기를 구경하고 배에서 갈매기와 친하면서 마음대로 시름없이 노

29) 同 권25, 「答鄭子中別紙」, 鳶飛魚躍 則道之在物 而自然發見流行之實 可見 又如浴沂詠歸而並言 則浴沂詠歸 道之在日用 而自然發見流行之實 可見.

30) 同 권42, 「丹陽山水可遊者續記」, 山水之好 好其清高耳 清者自清 高者自高 其於人之知不知 何預哉 山與水不自以爲恨 而余恨之 余則癡.

31) 「退溪集」, 「年譜卷倪」, 壬寅年條, 先生趣向高潔 常有急流勇退之志 離處榮官 非其所樂也.

닐다가, 좋은 경치 만나면 흥취가 절로 일어, 마음껏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고요한 방 안에 쌓인 책이 가득하다. 책상을 마주하여 잠자코 앉아 삼가 마음을 잡고 이치를 궁구할 때, 간간이 마음에 얻는 것이 있으면 흐뭇하여 밥 먹기도 잊어버린다. 생각하다가 통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는 좋은 벗을 찾아 물어보며, 그래도 알지 못할 때는 혼자서 끙끙댄다.<sup>32)</sup>

위의 글은 老哲學者이자 詩人인 퇴계의 居敬窮理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자연을 거닐다가 我와 物과의 교감의 흥취를 맛보기로 하고, 책을 보며 이치를 궁구하는 퇴계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 그런데 퇴계의 이러한 행각은 志學, 志道와 무관한 것이 아니며, 人欲을 버리고 天理를 보존하려는 정신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人欲을 버리고 以理觀物<sup>33)</sup> 할 때 자연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我와 物이 합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퇴계의 문학관이자 문학의 출발점이었다.

## V. 言志의 문학관

志의 문학관은 心學이 그러하듯이 性을 志하는 쪽과 情을 志하는 쪽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性을 志하는 문학관은 天理나 道에다 기반을 두고 문학을 보는 것이고, 情을 志하는 문학관은 이름 그대로 인간의 발랄한 情이나 欲에다 기반을 두고 文學을 보는 것이다.

예컨대, 고려의 이규보는 “사물을 보고 마음이 激함이 있으면 그것을 마구 글이나 시로 쏟아낸다”<sup>34)</sup>고 한 것이 있다. 또 고려속요는 남녀상

32) 同 권3, 「陶山雜詠並記」, 或坐石弄泉 登臺望雲 或磯上觀魚 舟中押鷗 隨意所適 道遙徜徉 觸目發興 遇景成趣 至興趣而返 則一室岑寂 圖書滿壁 對案嘿坐 競存 研索 往往有會心 輒復欣然忘食 其有不合者 資於麗澤又不得 發於憤悱.

33) “以理觀物”의 견지에서 쓴 논문으로는 李敏弘의 朝鮮前期 自然美의 추구와 漢詩(韓國漢文學研究 15輯, 1992)가 있다.

34) 이규보, 『東國李相國集』, 권20, 「驅詩魔文」 참조.

열지사라고 평을 받을 만큼 인간의 情을 꾸밈없이 쏟아 놓았다. 이러한 것은 情을 志하는 문학관이고 문학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 조선후기에 오게 되면 情을 志하는 문학관이 우세해진다. 허균의 “禮敎가 어찌 자유로움을 구속하겠는가. 浮沈을 다만 情에 맡겨 하겠노라. 그대들은 그대들의 법을 지켜라, 나는 나의 삶을 다 하겠노라”<sup>35)</sup>라 읊은 것도 情을 중시한 것이다. 또 홍대용도 “歌者 言其情也 情動於言 言成於文”<sup>36)</sup>이라 하여 情을 존중했다. 이들의 문학관은 그 志가 모두 情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夫詩雖末技 本於性情”<sup>37)</sup>이라 언급한 퇴계에게는 그 志가 情에 있는 것이 아니라 性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物에 感해서 動하는 것이 情일 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문학이 정감의 표출이기 때문에 퇴계도 性情이라 하여 情字를 붙였지만 그렇다고 퇴계는 李奎報나 許筠, 또는 홍대용의 경우처럼 情을 그대로 쏟아놓은 것을 찬성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性이나 理를 志하는 문학은 情을 다스려서 될 수 있으면 嗜欲을 捨理하고 純感을 표출해내는 것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詩本於情”이라 하지 아니하고 情 위에도 性을 하나 더 붙여서 “詩本於性情”으로 만들었다. 性은 情에 의해서 발현되지만 그것은 다시 배후에서 性이 받쳐줌으로 인해서 嗜欲이나 不善에 빠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퇴계의 문학관은 性에 이해서 여과되지 못하고 情을 그대로 쏟아 놓은 시나 노래는 비판을 받기 마련이었다. 퇴계는 고려속요는 물론이지만 한림별곡까지를 비판하였다.

우리 나라의 가곡은 대체로 淫哇하여 말할 것이 못된다. 翰林別曲과 같은 類는 文人の 입에서 나왔지만 矜豪放蕩하고 아울러 褻慢戲押하여 더구나 句字가 마땅히 崇尚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근세에 李鼈의 六歌라는 것이 세상에 널리 전하는데 오히려 이것(翰林別曲)보다 좋다고는 하겠

35) 許筠, 『惺所覆瓿藁』, 「聞罷官作」, 禮敎寧拘放 浮沈只任情 君須用君法 吾自達吾生.

36) 홍대용, 『湛軒書內集』, 「大東風謠序」.

37) 註7 참조.

으나 玩世不恭의 뜻이있고 溫柔敦厚한 실질이 적은 것이 애석하다.<sup>38)</sup>

퇴계는 한림별곡에 대해서는 矜豪放蕩하고 褻慢戲押하다고 했고, 六歌에 대해서는 玩世不恭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詩世界를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矜豪放蕩은 호걸스러움을 뽐내면서 방탕하게 군다는 뜻이고, 褻慢戲押은 거만하고 무례하며 희롱하고 친압한다는 뜻이며, 또 玩世不恭은 세상을 놀리는 불경스러움이라는 뜻인데, 퇴계는 한림별곡 類와 六歌를 그렇게 평했다. 이러한 시세계는 인간의 정감을 다듬지 않고 그대로 쏟아낸 것들인데 이것은 퇴계가 바라던 詩세계는 아니었다. 그러기에 퇴계는 그러한 불만에 대한 대안으로 溫柔敦厚의 詩教를 내놓았다. 이것은 『禮記』 經解에 나오는 것인데, 후대의 동양의 시세계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詩정신으로 되었다. “공자가 이르기를 그 나라에 들어가면 詩의 가르침을 알 수 있다. 그 사람됨이 溫柔敦厚하면 詩의 가르침에 감동한 것이다.”<sup>39)</sup>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溫은 얼굴빛이 온화함을 말하고, 柔는 性情이 온화함을 말하며, 敦厚는 인정이 두터움을 말한다. 이 경지는 情을 통째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中節에 가깝도록 여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鄭子精에게 준 편지에도 퇴계의 문학관이 보인다.

詩가 비록 末技이긴 하지만 性情에 근본하고 體와 格이 있으니 참으로 쉽게 배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대는 誇多鬪靡와 逞氣爭勝을 높이 여기니, 말이 혹 放誕함에 이르기도 하고, 뜻이 혹 龐雜함에 이른다. 일체를 묻지 않고 입으로 읊어진 대로 붓가는 대로 거칠고 난잡하게 써내려가니 비록 한때는 쾌락을 얻을지라도 만세에 전하기가 어려울까 두렵습

38) 『退溪集』, 권60, 『陶山十二曲跋』, 吾東方歌曲 大抵多淫哇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押 尤非所宜尙 惟近世有李鼈六歌者 世少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39) 『禮記』, 권26, 『經解』二十六, 孔子曰 入其國 其教可知也 其爲人也 溫柔敦厚 詩教也.

니다. 하물며 이러한 일들을 능사로 여겨 그 버릇을 그만 둘 수 없다면 말을 삼가해서 표현하거나 放心을 수습하는 도에 더욱 방해가 될 것이다.<sup>40)</sup>

퇴계는 鄭子精의 作詩 태도를 매우 꾸짖었다. 詩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작가의 높고 깊은 수양에서 터득된 性情과 체재와 격식이 있는 법인데 그대는 誇多鬪靡와 逞氣爭勝으로 인해서 詩가 放誕과 彫雜한 데로 흘러버렸다는 것이다. 입으로 읊어진 대로 붓가는 대로 거칠고 난잡하게 써내려간 이러한 詩는 性情의 詩가 아닐 뿐만 아니라 詩의 效用面에 있어서도 收放心의 道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性情과 收放心之道가 한쪽을 이루고, 放誕과 彫雜이 한쪽을 이룬다. 퇴계의 문학관을 放誕과 彫雜이 아닌 性情과 收放心의 道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퇴계의 이러한 性情의 詩는 인간 현실보다는 江湖의 樂을 읊은 것에서 결실되었다. 그러한 시정신은 퇴계의 「書漁父歌後」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龔岩 李先生은 나이 70이 넘어서야 벼슬을 버렸는데 지조가 뛰어나고 높았다. 汾水 가로 물러나 한가했으며, 여러 번 불러도 나가지 않았다. 富貴를 뜬 구름처럼 여기고 物外에서 雅懷에 잠겼다. 항상 小舟 短棹로 烟波에서 자유로웠다. 釣石 위를 배회하기도 하고, 백구와 친하며 세상을 잊고 고기를 바라보며 즐거움을 알았다. 江湖의 樂을 본받을 수 있다면 眞樂을 터득했다 할 만하다. …… 선생이 이에서 이미 眞樂을 얻었다면 마땅히 그 眞聲도 좋아했을 것이다. 어찌 세속 사람들이 鄭衛의 소리를 즐겨서 음탕한 마음을 돋우고, 玉樹後庭花와 같은 노래를 들으며 뜻을 태당하게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sup>41)</sup>

40) 『退溪集』, 권35, 「與鄭子精」, 夫詩雖末技 本於性情 有體有格 誠不可易而爲之 君惟以誇多鬪靡 逞氣爭勝爲尙 言或至於放誕 義或至於彫雜 一切不問 而信口信筆 胡亂寫去 雖取快於一時 恐雖傳於萬世 況以此等事爲能 而習熟不已 尤有妨於謹出言收放心之道.

41) 同 권43, 「書漁父歌後」, 龔岩李先生 年踰七十 卽投絃高厲 退閑於汾水之曲 屢召不起 等富貴於浮雲 寄雅懷於物外 常以小舟短棹 嘯肅傲於烟波之裏 徘徊於釣

物外에서 觀物을 하며 眞樂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보통의 경지가 아니다. 嗜欲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高郎明澈한 총명에 이르렀을 때만이 가능한 경지다. 欲에서 物을 보는 것이 아니라 理에서 物을 보고 性에서 物을 보는 경지라 볼 수 있다. 말하자면 以理觀物이요 以性觀物이다. 여기서 얻어진 노래라는 것은 鄭衛의 노래나 玉樹後庭花와 같은 음탕한 노래와는 완전하게 對를 이루는 眞樂이요 眞聲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퇴계가 龔岩의 漁父歌에 내린 평이지만 실상 이것은 퇴계 자신의 文學觀이었다.

그렇다면 眞樂이니 眞聲이니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퇴계의 경우는 흥 또는 흥취에서 나왔다. 퇴계는 자연과 합일이 되는 경지를 흥 또는 흥취라 했고, 그러한 흥이 詩를 낳게 했던 것이다. “선생의 학문은 의리가 정밀하고 …… 때로는 수석을 찾아 거닐면서 생각한 바를 읊어 흥을 나타내었다.”<sup>42)</sup>라 언급한 것도 그것이다. 景物→興→詩의 경로를 밟은 것이다.

禮安의 퇴계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스스로 퇴계라고 하였다. 衣食은 겨우 유지하였으나 담박한 데 맛을 들여 勢利와 紛華를 뜬 구름처럼 보았다. 말년에 도산에 집을 지으니 자못 林泉의 흥취가 있었다.<sup>43)</sup>

여기서도 勢利와 紛華와 같은 것을 물리치고 林泉에서 짓어든 흥취를 내보이고 있다. 그리고 詩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지만 이러한 흥취가 詩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때 처음에는 산에 비가 개어서 골짜기의 기운은 새롭고, 雲物이 맑고

---

石之上 押鷗而忘機 觀魚而知樂 則其於江湖之樂 可謂得其眞矣 …… 先生之於此 既得其眞樂 宜好其眞樂 豈若世俗之人悅鄭衛而增淫 聞玉樹而蕩志者比耶.

42) 同「言行錄 遺事」, 先生之學 義理精密 …… 有時道遙水石間 吟詠性情 以寓蕭散之興

43) 上同, 卜居于禮安之退溪 因以自號 衣食僅足 味於淡泊 勢利紛華視之若雲然 季年築室于陶山 頗有林泉之趣.

고왔다. 마침 玄鶴이 중봉으로부터 날아와서 두 차례 빙빙돌다가 몽계 구름 밖으로 들어간다. 내가 배 안에서 술을 들고 시를 읊으니 초연히 서늘한 바람을 타고 허공에 놀 뜻이 있었다.<sup>44)</sup>

여기에는 흥취라는 단어는 빠져 있지만, 비가 갠 산골에 기운이 새롭고, 玄鶴이 날고, 몽계구름이 떠있는 景物에서 퇴계는 이미 興에 잠겨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푸른 강을 떠가는 배 안에서 詩를 읊었다고 하였다.

결국 嗜欲을 버리고 자연과 합일하지 못하면 자연의 흥취도 맛볼 수 없고, 자연의 흥취를 맛볼 수 없으면 眞樂과 眞聲도 내놓을 수 없을 것은 물론이다. 결국 眞樂과 眞聲으로 이어지는 퇴계의 자연시는 以理觀物 또는 以性觀物의 경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理를 志하고 性を 志하여서 닦아진 至純 至善한 나의 심성이 天의 구현물인 자연과 합일되어 탄생한 산물이라고 보여진다. 이것이 言志詩다.

## VI. 言志詩의 실제

본 장에서는 그러한 言志詩를 실제로 살펴보려고 한다. 冒頭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詩題에 言志라 붙인 시는 「陶山十二曲」 가운데 六曲과 「三月病中言志」 「東巖言志」 「陶山言志」 「求志」 등이 있다. 「三月病中言志」은 퇴계의 나이 43세 때 지었고, 「東巖言志」은 문집 권1과 속집 권1의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46세 때 지었다. 그리고 「求志」 「陶山言志」과 「陶山十二曲」은 61세 때 지었다. 그러면 지은 연대가 가장 앞선 「三月病中言志」을 소개한다.

44) 同 권42, 「丹陽山水可遊者續記」, 于時山雨初霽 峽氣如新 雲物清妍 適有玄鶴 自中峯飛出 盤迴數匝而入於雲霧之表 余於舟中 取酒吟詩 超然有御冷風遊汗漫之意.

날씨 개이라고 비둘기가 한 쪽 처마에서 우는 것은,  
 나더러 새로 낸 사립문을 열라고 하는 뜻이겠지.  
 지팡이 짚고 서녘 동산을 걸으니,  
 꽃나무들은 다투어 향기를 뿜네.  
 성안은 봄 안개로 감싸였는데,  
 누각에는 붉은 햇빛 아름답게 비치네.  
 자연을 둘러보고 마음을 그윽히 위로 하니,  
 가벼운 옷과 살찐 말을 어찌 부러워하겠는가.  
 전원에 돌아가 농사를 짓는다면,  
 들에서의 기쁨이 이보다 더하리라.  
 원래 가죽나무처럼 쓸모없는 자질이니,  
 평생 초야에 묻혀 살기만을 기다리네.  
 하염없이 푸른 산구비를 쳐다보고,  
 눈으로만 흰 구름 유유히 흘러감을 보네.

(晴鳩喚爲用 勸我開新扉 策杖步西園 花木錚芬菲 城中春霧籠 樓閣映丹暉  
 覽物撫幽蘭 所慕豈輕肥 田園春事作 野興濃於茲 向來樗散質 平生丘壑期  
 悵望青山郭 目送白雲歸)

年譜에서 보면, 퇴계는 43세 때에 朝奉大夫와 典設司守 같은 벼슬을 지내고 있었으나 마음은 항상 志隱에 있었다. 「三月病中言志」을 썼던 해의 11월에 曹南溟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한갓 옛 성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집이 가난하고 모친이 노쇠해졌기 때문에 친구들이 억지로 과거 벼슬을 얻을 것을 원함으로, 내 그때에 실로 식견이 없어서 곧 권유에 마음이 움직이며 추천하는 글에 이름을 걸고 보니, 티끌 속에 묻혀 날마다 겨를이 없었거늘, 다른 것은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 뒤에 병이 더욱 심하고, 또 스스로 생각하여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되돌아보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서 옛 성현의 글을 많이 가져다 읽고서 크게 깨달아, 이후에라도 길을 고치고 방향을 달리하여 그렇게라도 桑榆의 景을 지우려 하며 휴가를 얻어 벼슬자리를 떠나서 고향의 산 중으로 들어가서 아직 채 이루지 못한 것을 구하고자

합니다.”<sup>45)</sup>라 하는 것이다. 南溟에게 보낸 이 편지야말로 「三月病中言志」을 푸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편지에서 보다시피 퇴계의 志는 예 성현을 사모하고 또 따르고 싶은 마음, 곧 志道에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늙은 부모 때문에 벼슬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라도 벼슬길을 떠나서 고향의 산중으로 돌아가 채 이루지 못한 것을 구하고 싶었던 것이 43세 무렵의 결심이었다. 이 詩 속에 城中이니 樓閣이니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면 퇴계는 아직 벼슬길에 머물러 있었던 때로 보인다. 그러나 “가벼운 옷과 살찐 말을 어찌 부러워 하겠는가”라던가, “평생 초야에 묻혀 살기만을 기다리겠네”라는 표현을 보면 퇴계의 志는 항상 江湖에 있었음을 알게 된다. 다음은 「陶山言志」다.

山堂이 반이나 이루어져 스스로 기뻐하니,  
 산에 살더라도 몸소 밭가는 일은 면할 수 있을 것 같다.  
 책을 이 산당으로 옮겨보니 옛 책상 자가 점점 비어가고,  
 대를 심어보고 보고 하는 동안 새 죽순 나네.  
 샘물 소리 밤의 고요함을 방해한다 느끼지 못하겠고,  
 산빛이 좋고 아침이 갠 것을 다시 사랑한다.  
 옛부터 숲에 사는 선비들은 만사를 잊고,  
 그 이름 숨기려던 뜻을 이제 알겠네.  
 (自喜山堂半已成 山居猶得免躬耕 移書稍稍舊龕盡 植竹看新笋生 未覺泉聲妨夜靜 更憐山危好朝晴)

앞에서 예시한 「三月病中言志」에서는 아직 벼슬길을 떠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을 그리워한 심경을 읊었다면, 이 「陶山言志」에서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한 심경을 읊었다. 퇴계가 거처할 산당이 이미 반이나 이루어지자 책을 이곳으로 옮기는 모습이 드러나 있고, 대를 심

45) 同年譜 癸卯年條, 某自少徒有慕古之心 緣家貧親老 親舊強使之 由科第取利祿 某當時實無見識 輒爲所動 偶名薦書 汨沒塵埃 日有不暇 他尙何設哉 其後病益深 又自度無所猷爲於世 始乃回頭住脚 益取古聖賢書而讀之 於是煬然覺悟 欲迫而改塗易轍 以收桑榆之景 乞身避位 拘負墳典而來 投於故山之中 將以益求其所未至.

어 새 죽순이 나고, 고요한 밤에 샘물 흐르는 소리가 나며, 개인 날 아침에는 산빛이 더욱 좋은 것이다. 퇴계는 이러한 자연이 좋았다. 더구나 모든 것을 잊고 자연 속에서 독서 삼매에 빠져들고, 사색하게도 되었으니 퇴계는 다시 없이 기뻐다. 퇴계의 이러한 志는 60이 넘어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독서이고 사색이겠는가. 그 해답은 아마도 「求志」라는 다음의 시에서 내려질 것이다.

隱志는 딴 것이 아니라 말미암은 바를 통달하는 것이요,  
 天民의 德業을 반드시 추구해야만 하도다.  
 성현을 우리름은 바로 우리들의 할 일이요,  
 道를 지키면 오히려 오늘의 근심을 잊을 수 있네.  
 쇠 녹여 틀에 부음이 크게 틀려 틀을 바꾸고,  
 길을 잘못 들었음을 깨닫자 곧 배를 돌렸네.  
 顔回의 마을처럼 가난하지만 지키는 도를 부지런히 닦으리니,  
 부귀는 하늘의 구름처럼 한 점 떠도는 것.  
 (隱志非他達所由 天民德業尙須求 希賢正屬吾僚事 守道寧忘此日憂 大錯  
 鑄來容改範 迷途學處急回轉 祇從顔巷勤攸執 貴富空雲一默浮)

숨어 살면서 독서도 하고 사색도 하고 글도 쓰고 시를 짓는 것은 천민으로서 반드시 德業을 구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德業이란 구체적으로 希賢과 守道에 있다 하였다. 말하자면 퇴계의 志는 성현을 본받는데 志하고 道를 지키는데 志하고자한 데 있다. 그러면서 퇴계는 60 평생 걸어온 생애를 되돌아 보는 것이다. 다행히 迷路를 빨리 깨달았다고 했다. 미로란 현실에서의 벼슬살이를 말한다. 그리하여 改範을 결심하게 된다. 개범이란 과거에 살았던 생활의 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고친다는 뜻이다. 富貴功名을 뜯구름처럼 알고, 가난하지만 자연에 묻혀 학문을 하고 道를 닦는 일이었다. 이렇게 改範을 하고 나니 눈앞에 전개된 천지자연의 만물은 온통 道의 구현물이 아닌 것이 없었다. 말하자면 道에 이르는 것을 구경의 목적으로 삼았던 퇴계에게는 자연 그 자체가 道場이요 스승이었던 것이다. 「도산십이곡」에

등장한 景物은 대개 煙霞, 風月, 幽蘭, 白雲, 갈매기, 白鷗, 물고기, 소리개, 雷霆, 靑山, 流水, 白日, 하늘, 꽃, 四季 등인데, 퇴계에게는 이것들이 다 道의 구현물임으로 이것들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興이 절로 났던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퇴계는 鳶飛魚躍에서도 道가 발현 유행하는 실상을 보고, 浴沂詠歸에서도 道가 발현 유행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도산십이곡」 중, 言志에 나오는 다음의 노래는 단순히 자연에서의 즐거움만을 읊은 것이 아니라 道의 발현 유행하는 것을 본 것이다.

春風에 花滿山하고 秋色에 月滿臺라 四時佳興이 사롭과 혼가지라 흐믈  
며 魚躍鳶飛 雲影天光이야 어니 그지 이실고

이 노래는 얼핏 보기에는 매우 흔한 것들이 등장하였다. 봄 바람에 꽃이 산에 가득히 피고, 가을에는 달이 비치고, 고기가 뛰고 솔개가 날고, 그리고 구름이 뜨고, 햇빛이 비치는 광경 쫘이야 누구나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있어서 특별히 감명을 줄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눈 앞에 전개된 이러한 양상들이 天理의 유행이요 놀라운 우주적 질서요 섭리임을 깨닫게 되면 새삼스럽게 그것들은 숭고하고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게 된다. 그러나 天理의 구현물인 자연과 일체가 되고, 四時佳興과 한 가지가 되려면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人欲을 씻어내고 天理를 보존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퇴계의 학문과 수양도 여기에 있었으며, 言志詩의 뿌리도 여기에 있었다. 더구나 60이 넘어서야 자연에 안기게 된 퇴계로서는 이제 도산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泉石膏肓을 고칠 수가 없다고도 했다.

이런들 엇더흐며, 더런들 엇더흐료  
野草愚生이 이러타 엇더흐료  
흐믈며 泉石膏肓을 고터 므슴흐료

또 퇴계는 煙霞로 집을 삼는다고도 했고, 風月로 벗을 삼는다고 하면서 다만 이 가운데에 살면서 허물이나 없기를 바랐다.

煙霞로 지불 삼고 風月로 버들 사마 太平聖代에 病으로 늘거가뇌 이등  
에 브라는 이른 허므리나 업고자

퇴계는 이렇게 60이 넘어서야 자연에서 자기의 志를 충족하게 된 셈이었다. 퇴계에게는 자연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퇴계 詩의 대부분은 자연과의 교감에서 이루어졌고, 또 극치를 이루었던 것이다. 도산 주변의 자연물을 읊은 詩 몇 수를 소개한다.

#### 賞花

한 번 꽃이 피면 한 번 새롭나니,  
차례로 하늘은 나의 가난을 위로하러 하네.  
造化는 무심히 얼굴을 드러내고,  
건곤은 말없이 스스로 봄을 머금었네.  
시름을 씻으려 술을 부르니 새들이 서로 권하고,  
得意하여 시를 지으매 붓에 神이 있도다.  
선택하는 권리는 온통 내 손안에 있으니,  
어지러히 나는 벌나비 그대로 두어라.

(一番花發一番新 次第天將慰我貧 造化無心還露面 乾坤不語自含春 澆愁  
喚酒禽相勸 得意題詩筆有神 詮擇事權都在手 任地蜂蝶謾紛賓)

“一番花發一番新”이나 “造化無心還露面”, 그리고 “乾坤不語自含春” 등에서는 퇴계가 우주의 조화가 생동감있게 펼쳐지고 있는 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景을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次第天將慰我貧” “澆愁喚酒禽相勸”에 이르게 되면 우주는 문득 나에게로 다가서게 된다. 그래서 하늘은 나를 위로해주고, 지지귀는 새들과 술자리를 같이 하게 되니 가난이나 근심 따위는 쉽게 잊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퇴계는 이 경지에 이르러서야 得意를 하여 詩를 짓게 된다. 그래

서 잡은 붓대에 神이 오른다고 하였다. “得意題詩筆有神”이 그것이다.

다음은 天理의 구현물인 자연과 합일이 되는 詩를 한 두 수 소개하려고 한다. 먼저 「雪月竹」이라는 詩다.

옥같은 눈은 차갑게 쌓여서 누르고,  
 얼음은 수레바퀴(月)는 멀리에서 비친다.  
 이에 괴로운 절개 굳음을 알겠거니,  
 더욱 빈 마음의 깨끗함을 깨닫겠도다.  
 (玉雪寒堆壓 冰輪廻映徹 從知苦節堅 轉覺虛心潔)

퇴계는 지금 雪과 月과 竹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起句에서는 대 위에 쌓여 있는 옥가루같은 눈을 읊었고, 承句에서는 얼음의 수레바퀴 같은 달을 읊었다. 이른바 起句와 承句는 景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景만을 묘사한 것이 아니다. 그 속에 이미 情이 스며있다. 情이 스며있으되 그것은 人欲에서 우러난 情이 아니라 人欲을 이미 씻어낸, 말하자면 눈이나 달과 같은 至純한 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情과 景은 起句와 承句를 타고 다시 轉句와 結句로 이어져 節과 虛心으로 심화되면서 我와 雪과 月과 竹이 하나가 되고, 情과 理가 하나로 융화된다. 이러한 詩를 性情의 詩, 또는 理法의 詩라 할 수 있다. 정감을 그대로 표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理나 性에 의해서 그 정감이 여과되어 발로된 詩라는 뜻이다.

다음은 퇴계가 가장 좋아했던 매화시 한 수를 소개한다. 「溪齊夜起對月詠梅」라 題한 詩다.

羣玉山 머리에 제일 신선,  
 얼음살 눈빛이 꿈에 고왔다.  
 일어나 달 아래 서로 만나는 곳에,  
 완연한 仙風으로 한 번 살짝 웃네.  
 (羣玉山頭第一仙 冰肌雪色夢娟娟 起來月下相逢處 宛帶仙風一粲然)

起句에서는 매화를 신선에다 비유하였다. 그것도 매화를 周나라 穆天

자가 곤륜산에 올라 西王母와의 대화에서 나온 지극히 빼어난 羣玉산의 신선에다 비유하였다. 承句에서는 매화를 氷肌雪色에다 비유하였다. 이것은 지극히 청순 고결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이 起句 承句는 아직은 상상이나 꿈 속에서 보는 매화일 뿐이다. 그러나 轉句에서는 이러한 매화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結句에서는 만나는 감회를 서술하였다. 매화는 완전한 신선의 풍채로 살짝 한 번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신선이 미소를 짓는데 빨려들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순간 나와 매화는 혼용을 이루고, 신선과 같은 매화의 청순 고결은 곧 나의 청순 고결을 이룬다. 그런데 人欲에 가리운 사람들에게는 매화가 신선같이 보일 까닭이 없으며, 청순 고결하게 보일 까닭이 없다. 더구나 그러한 매화와 내가 일체가 될 까닭도 없다. 곧 매화를 신선같이 보고, 또 매화의 청순 고결함과 내가 일치가 된것은 실은 나의 마음이 이미 人欲을 버리고 청순 고결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매화와 나는 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 VII. 결 언

지금까지 “퇴계의 문학관에 있어서의 志의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퇴계의 詩세계를 살펴 보았다. 그런데 志라고 하는 것은 心之所之인데, 그 所之에서 之는 向이라는 뜻이었다. 마음의 향함인 것이다. 말하자면 志는 心의 내용이 아니라 心의 방향인 셈이다. 마음을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문학의 좌표도 달라질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퇴계의 志는 온 길을 다 차단해버리고 한 길로만 터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한 길이라는 것이 道였다. 그 道는 물론 聖人이 經典에 밝혀 놓았으므로 경전을 배워서 道를 터득하게 된다. 경전을 배우는 것이 志學이고, 志學을 통해서 道에 이르는 것이 志道였다. 다시 志學과 志道の 정신에서 생산된 것이 言志詩였다. 그러니까 퇴계의 온갖 학문이나 문학

은 이 志學과 志道の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다시 志學과 志道에 부수해서 발단한 것이 心學 또는 心性論이었다. 志學이니 志道니 하는 것은 心의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心學이나 心性論의 단서는 매우 복잡하지만 퇴계의 기본 논리는 의외로 단순한 편이었다. 퇴계는 “대저 心學이 비록 단서가 많으나 모두 요약하면 人欲을 막고 天理를 보존한다는 두 일에 지나지 않다”라 한 것이 있다. 人欲과 天理, 그리고 이 사이에 志가 끼어들어서 人欲을 막고 天理를 보존케 하는 것이 퇴계의 기본 공식이다. 퇴계의 심성론의 기본을 이루는 性과 情, 四端과 七情, 道心과 人心, 本然之性과 氣質之性 등도 遏人欲存天理의 공식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性, 四端, 道心, 本然之性은 心의 본질이어서 至純 無不善한 것이므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지만, 情, 七情, 人心, 氣質之性은 心의 發用이어서 不純과 不善의 일면이 있으므로 이것을 막거나 다스려서 中節케 해야 한다고 하였다. 퇴계의 이러한 心性은 자신의 생활 철학을 바꾸어 놓기에 이르렀다. 動보다는 靜을, 顯보다는 陰을, 세속보다는 산수자연을 더 좋아 하였다.

퇴계의 이러한 志는 그대로 문학사상이 되고 문학의 배경이 되었다. 퇴계는 詩를 정의하여 “詩本於情”이라고도 할 수 있고, “詩本於性情”이라고 해도 좋을 것을 왜 하필이면 性情이라 한 데 흥미가 있다. 詩란 일차적으로는 情의 발현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퇴계에게는 情이 그렇게 달가운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情은 不善의 일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情을 표출해서 詩를 썼다고 해도 퇴계의 뜻에 찰 수가 없었다. 여기에 性이 등장하게 되었다. 情 앞에 性이라는 여과 장치를 붙인다면 情에 혼잡되어 있는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性情의 詩는 情을 그대로 쏟아놓은 詩와 다를 것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陶山十二曲跋』에 나오는 詩論도 2분법으로 되어 있다. 矜豪放蕩·褻慢戲狎과 溫柔敦厚가 그것이다. 전자는 精鍊되지 못한 정감의 소산임으로 따라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후자는 『禮記』에 나

오는 至純한 詩정신이므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書漁父歌後」에서는 淫蕩과 眞聲이 對를 이루었다. 「霜花店諸曲」은 음탕한 노래이므로 버려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부가」는 眞聲임으로 취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與鄭子精」이란 편지에서는 鄭子精이 지은 詩를 평한 것인데, 그 詩가 放誕 彫雜하므로 收放心之道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를 걱정한 것이었다.

퇴계는 言志詩를 얼마간 남겼는데 여기에서도 聖人の 가르침을 배우고, 道를 터득해 가는 이른바 志學과 志道の 감흥과 즐거움을 읊었고, 天理의 구현물인 천지만물과의 합일이 되는 즐거움을 읊었다. 그리고 言志詩가 아니더라도 퇴계의 대부분의 詩는 산수자연에서 받은 감흥을 읊은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퇴계에게는 그의 총체적 학문이나 문학론 또는 창작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 志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人欲이나 情을 제어해서 天理의 보존, 곧 道에 志하는 일이었다. 여기서 문학도 저절로 정감이 아니라 理法 내지는 性情의 문학이 존중되었고, 또 이것은 16세기 문학의 특성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반 사상이나 문학관은 시대의 추세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이다. 본고에서 다룬 16세기적 사유가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된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의 문학의 속성에 性←情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후기의 속성은 性→情으로 나타낼 수 있을 듯하다. 전자는 志가 性에 있고, 후자는 志가 情에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다만 화살표의 방면 하나를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지만 문학의 좌표적 변동은 대단한 것이었다. 하나는 하늘을 향해서 높아가고, 하나는 지평선을 향해서 넓혀 가는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우열의 차이를 매기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차이를 보이면서 문학사를 장식해 갔다는 사실이 대견할 뿐이다.